나는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마치 엄청난 예술작품 같은 것 같은 모든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잠시 동안 그 그림을 봤다.

Damon의 가방 위에 있는 같은 심볼의 회색 배경과 다락방의 그 상자,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어색한 미소, Damon의 아버지의 빨강 머리 그리고 나의 아빠의 따뜻한 헤이즐 빛의 눈..

옛날사진이라고 추정되는 되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근의 사진처럼 보였던 것이 꽤 이상했다.

사실 나는 수년동안 나의 아빠의 사진을 본 적이 없고 아빠에 대한 나의 기억들은 모두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분명히 그 사진의 헤이젤 눈빛을 가진 사람이 나의 아바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익숙한 그러나 어색한 미소가 나의 사라져 가는 기억에 색을 덧입혔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다.

“Alice, 괜찮니?” Damon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고 나는 계단에서 그의 가벼운 발소리를 들었다.

아, 나는 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 버렸다. “Damon, 전 괜찮아요. 오실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가 목으로부터 나왔다. 그렇지만 늦었다 그는 살짝 눈을 굴리면서 나와 그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아 그 사진” 그는 빈정댐과 당황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빠른 속도로 나에게 걸어왔는데 거의 나에게 뛰어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곧 그는 내 앞에 있었다.

그는 그의 눈을 약간 찡그리고 뜨고 그의 손을 뻗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단지 그 사진을 가져가려고 할 뿐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까지 나를 무섭게 했다.

사진을 가져가면서 그는 “해서는 않되는데.. 실수야”와 같은 말들을 중얼거렸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난 일이어서 나는 그저 바보처럼 그를 쳐다 보았다.

수천개의 질문이 내 머리 속에서 터져 나왔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조차 없었다.

그가 그 사진을 가져 가고 내가 질문들을 다 정리했을 때 그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왔다. “사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아빠랑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는 거죠? 뭘 숨기고 있고 그 이유는 뭐죠?

나 혹은 우리 가족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내가 질문을 다 했을 때 나는 숨을 들이 마셨고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침내 입술을 움직여서 침묵을 깼다.

 “너의 아빠는 살아있어, Alice. 죽지 않았어.”